

## 2026년 추석 차례상 비용 하락, 추석물가 안정 및 국민편의 제고에 총력

- 과일 등 가격 안정, 정부유통업체 할인에 힘입어 추석 차례상 비용 전년비 하락
-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차질없이 실시중
- 추석 연휴 마지막까지 명절물가 안정 및 국민 편의 제고에 총력 대응

주요 물가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과일·수산물 등 수급상황 안정과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노력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석 3주전(9.3~4일) 4인 가족 기준으로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의 구매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구매비용은 31만 3,089원으로 전년대비 △2.3% 하락하여 2017년 이후 9년 만에 하락한 모습이다. 품목별로 과일(△7.3%), 수산물(△6.8%), 기타식품(△3.5%), 가공식품(△2.5%) 등 대부분의 품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축산물(+0.8%)은 가축 전염병 영향으로 인한 공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서울 25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총 90개 유통업체 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추석 1주전(9.18일) 조사\*에서도 차례상 비용은 19만 6,630원으로 전년대비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과일(△7.2%), 수산물(△4.9%), 임산물(△8.4%) 등은 공급이 확대되며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채소(+2.7%), 축산물(+2.5%) 상승 부담을 일부 상쇄하였다.

\* 전국 22개 지역 17개 전통시장과 36개 대형 유통업체 대상

이 중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차례상 비용 부담이 더욱 크게 하락하여, 전년대비 각각 △5.0%(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7.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6년 차례상 비용 조사 결과

|             | 조사 지역     | 조사 기간 | 조사 품목 |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서울 25개 구  | 9.3~4 | 25개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국 22개 도시 | 9.18  | 24개   |

※ 각 기관의 조사대상(서울-전국, 백화점 등 포함 여부), 조사항목 및 규격(예시: 축산물 부위, 용량) 등 차이에 따라 차례상 비용 총액은 상이하게 나타남

이러한 차례상 비용 하락세는 정부가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및 보완 방안을 통해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적극적인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가용예산을 총동원(1,930억원)하여 전년(900억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소비자들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30일까지 유통업체에서 1인당 한도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축산물 자조금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더욱 완화하고 있다. 또한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1.6배 확대(18.5만톤)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가격상승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의 경우 온누리 상품권 환급, 농축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할인 판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확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과 차례상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 9.16~20일간 농축산물·수산물 각 300개 전통시장에서 구매액의 약 30% 상당(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20% 선할인 판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상향(평시 7%→10%) 및 구매한도 20만원 확대

정부는 전 국민이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마지막 주인 9.30일까지 할인지원 등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지속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TF」 등을 통해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행사 강화, 정부비축 물량 추가 확대 등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여 국민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24~27일), KTX·SRT 역귀성 등 일부 열차 할인(30~50%) 등을 실시하고,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유산과 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 응급의료포털(e-gen.or.kr), 응급톡톡앱,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

|       |                |     |     |     |                     |
|-------|----------------|-----|-----|-----|---------------------|
| 담당 부서 | 민생경제국<br>물가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양운영 | (044-215-282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창규 | ckpark0916@korea.kr |
|       | 민생경제국<br>물가구조팀 | 책임자 | 팀 장 | 송윤주 | (044-215-2830)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훈 | jihun2150@korea.kr  |

